

최근 EU와 중남미 간 직접투자 증가 배경 및 향후 전망

이시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연구원 (suyi@kiep.go.kr, Tel: 3460-1267)



차 례 ●●●

1. EU와 중남미 간 직접투자 현황
2. EU와 중남미 간 직접투자 증가 배경
3.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은 대(對)중남미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2004~07년 EU의 대중남미 FDI 규모는 평균 260억 달러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2008~11년에는 523억 달러로 규모가 오히려 두 배 가량 증가하였음.
 - EU의 대중남미 FDI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역시 역사적으로 긴밀한 투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투자비중은 서비스부문이 가장 높으며, 남미에서는 제조업보다 천연자원에 대한 비중이, 멕시코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중남미의 대EU 투자는 2010년 급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갖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중남미의 대EU 투자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이며 투자지역은 포르투갈(35%), 스페인(21%)에 편중되어 있음
 - 2003~11년 통계에 따르면 중남미의 대EU 투자부문은 건설자재(28%), 화학(16%), 금속(9%), 석유 및 가스(8%), 식음료(7%)로 한정되어 있음.
- ▶ 유럽기업들은 중남미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소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 EU 기업들은 기존에 기반이 부족했던 중남미의 통신 및 송·배전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음.
- ▶ 한편 2000년대 초반 역내 인근 국가들에만 진출해 있던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은 생산성과 자본력이 증대됨에 따라 활발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진출전략 다양화 등을 추구하며 EU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 내 자본수요가 증가한바, 이는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EU의 재정위기로 EU 국가들의 대중남미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의 EU 진출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양 지역간 투자 부문과 형태를 살펴볼 때 양자간 투자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양 지역은 이를 이용하여 투자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1. EU와 중남미 간 직접투자 현황

가. EU의 대(對)중남미 직접투자 현황

■ 최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EU 국가들은 대중남미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2004~07년 EU의 대중남미 FDI 규모는 평균 260억 달러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2008~11년에는 523억 달러로 규모가 오히려 두 배 가량 증가하였음(표 1 참고).
- EU의 FDI 총액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4~07년 기간에는 평균 3%를 차지하였으나 2009~11년에는 6%로 증가하였음(그림 1 참고).
- 지난 10년간 EU 국가들의 대중남미 FDI는 전 세계 대중남미 FDI의 40%를 차지함.

표 1. 2002~11년 EU 주요국들의 대중남미 FDI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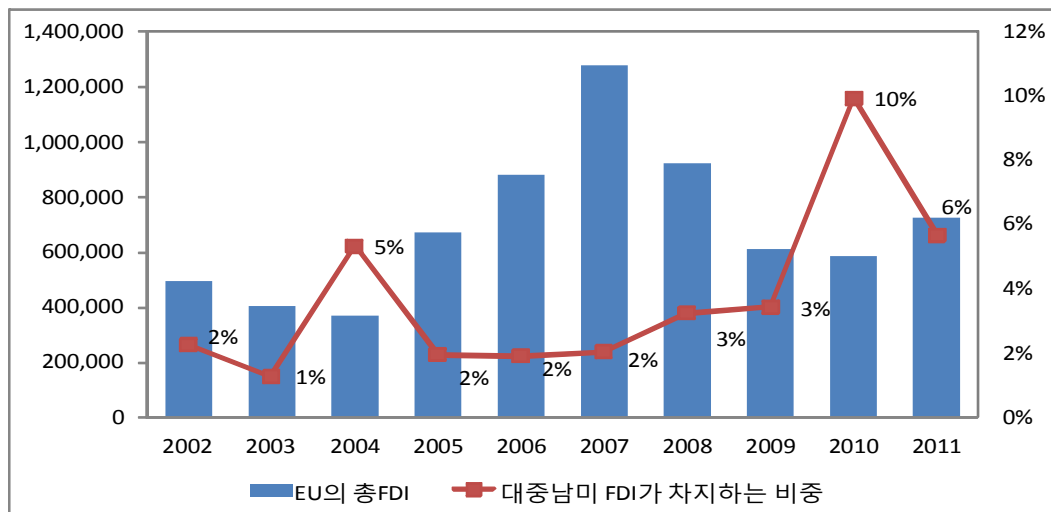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일	-485	-419	3,178	2,040	2,867	3,193	-285	1,817	3,110	3,699
스페인	9,207	3,111	13,662	7,743	9,827	18,449	19,963	12,327	29,984	11,927
프랑스	1,449	-1,497	467	2,415	2,884	2,131	5,121	6,348	5,767	5,011
이탈리아	610	271	239	394	305	242	2,149	1,409	988.3	832
영국	3,687	3,614	6,408	934	4,713	3,023	2,682	2,046	na	na
EU(25개국)	15,674	7,276	27,489	18,247	23,557	36,515	41,624	29,519	80,973	57,361

주: na는 데이터 없음.

자료: EUROSTAT, Direct investment flows, Financial account, Direct investment, Abroad, Latin American countries(환율 2009년 기준 1.00EUR=1.394USD, 2013. 2. 24 열람).

그림 1. EU의 총 FDI 중 중남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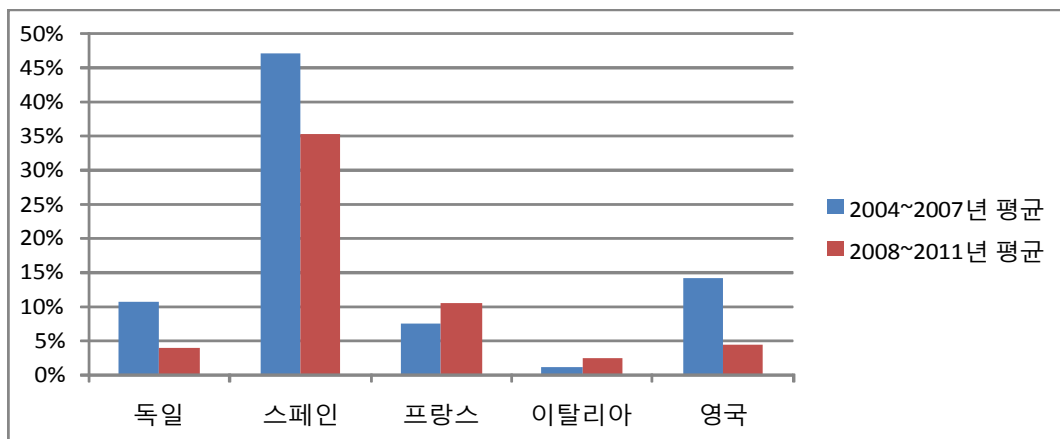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Direct investment flows, Financial account, Direct investment, Abroad. (2013. 2. 24 열람)

■ 중남미 지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는 스페인이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역시 역사적으로 긴밀한 투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 EU의 대중남미 FDI 중 스페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이며, 투자액의 35%를 브라질에 집중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스페인의 대중남미 FDI를 살펴보면 서비스부문이 86%, 제조업부문이 12%(주로 브라질), 1차산업 부문이 2%를 차지하고 있음(Arahuetes 2011).
 - 스페인의 투자는 Telefónica, Endesa, Repsol, Iberdrola, Santander 은행, BBVA 은행과 같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중남미 투자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¹⁾
-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조업부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해왔으나 최근 통신과 에너지·서비스 부문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추세임.
 - 프랑스 기업들은 중남미 국가들의 민영화 과정에 활발하게 참가하며 다양한 서비스부문에 진출하여 발판을 마련함.
 - 이탈리아의 경우 식품이나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자동차, 화학, 기계와 같은 자본집약적 부문에 투자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산업 투자와 관련하여, 독일은 수출중심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멕시코와 달리 브라질에서는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2. EU의 대중남미 FDI 중 EU 주요국들이 차지하는 비중



주: EUROSTAT에서는 네덜란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영국의 2010년, 2011년 수치는 2009년을 사용하였음.

자료: EUROSTAT, Direct investment flows, Financial account, Direct investment, Abroad, Latin American countries(검색일 2013. 2. 24).

■ 2000~11년 통계에 따르면 EU의 대중남미 부문별 투자비중은 서비스부문이 가장 높으며, 남미에서는 제조업보다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비중이, 멕시코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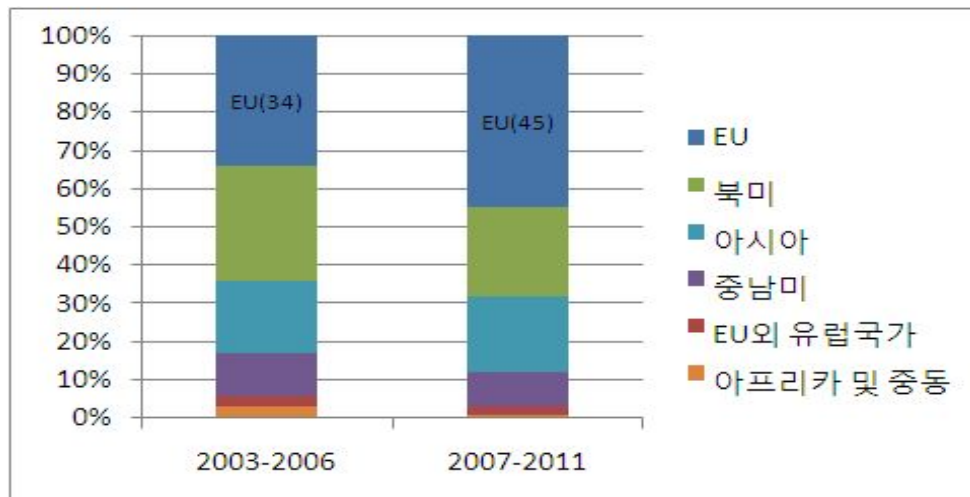
- 최근 EU 기업들은 서비스부문 진출 시 규모가 큰 인수합병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1) The Economist(2009), "Spanish companies in Latin America, A good bet? Investments in Latin America offer protection against Spain's slowdown."

방식을 통해 역내 입지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표 2 참고).

- EU 기업들은 서비스산업부문 진출 시 주로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매, 건설, 물류, 미디어, 금융서비스, 관광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²⁾
- 특히 최근에는 전력과 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했던 중남미 지역 내 통신 및 전력 서비스가 개선되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 제조업부문 신규 투자프로젝트에서 EU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06년 34%에서 2007~11년 45%로 증가하였음(그림 3 참고).
- 주요 투자분야는 자동차, 철강, 식음료, 화학 산업(특히 화장품)임.
- 철강산업의 경우 ArcelorMittal, Lázaro Cárdenas와 같은 유럽기업들이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연기된 바 있음.
- 한편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경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같은 중남미 주요 자원부국의 국유화 정책과 법률 개정으로 투자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 3. 2003~11년 지역별 대중남미 제조업부문 FDI 비중



자료: CEPAL(2012),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해외투자유인을 크게 ‘천연자원추구형(natural resource seeking)’, ‘시장추구형(market seeking)’, ‘수출 효율성 추구형(export efficiency seeking)’, ‘전략적 자산 추구형(strategic asset seeking)’으로 구분함. 천연자원추구형은 투자지역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경우, 시장추구형은 투자대상국의 내수시장에 기회가 많을 경우 기업들이 선택하는 전략형태임. 수출효율성 추구형은 수출지향적 기업들이 투자대상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시장기회가 있을 경우 추구하는 전략이며, 전략적 자산추구형이란 기술이나 브랜드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일컫음.

표 2. EU 다국적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전략

부문	장점					애로사항	국가	전략
	수출	신규투자	산업 내 연계성	R&D	시스템 경쟁력			
천연자원								
석유 및 가스	높음	높음				환경오염, 오수관리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천연자원 추구
광산업	높음	높음				환경오염, 오수처리, 지역 공동체와의 갈등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제조업								
식품		중간	높음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시장 추구
자동차		높음	높음	높음		무역 적자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중간		중간		기술 및 과학 기반 형성 부족	브라질, 아르헨티나	
철강	중간	중간				현지 고용, 환경오염	브라질, 멕시코	
화학제품		중간	중간	중간		환경오염	브라질, 멕시코	
자동차	높음	중간	높음	중간		수입 부품에 대한 의존도, 국내시장에서 수출로 연결되지 않음.	멕시코	수출 효율성 추구
전자제품	높음	중간				낮은 부가가치, 수입 부품에 대한 의존도	멕시코	
서비스								
은행		중간	중간		중간	외부에서 유입된 민간투자가 지역 및 개발은행을 구축함.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시장 추구
전력		중간			높음	악한 규제환경, 환경 영향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신재생 에너지		높음			높음	악한 규제환경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파나마	
통신		높음		중간	높음	소규모 시장으로 인해 기술 이전 어려움	중남미	
관광		높음	중간			환경 영향	멕시코, 브라질, 중미	
상업		높음	높음			상품 공급과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 문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자료: CEPAL(2012),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나. 중남미의 대EU 직접투자 현황

■ 중남미의 대EU 투자는 2010년 급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갖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의 대EU FDI는 2006~09년 평균 약 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20억 달러를 상회함.
- 브라질 다국적기업의 72%가 유럽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밖에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의 다국적기업들 역시 EU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그림 4 참고).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낮은 기업신뢰도로 인해 2012년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회수가 대량 일어났으나 개도국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는 전년대비 10.7% 상승한 1,147억 달러(전 세계 M&A의 37%에 해당)에 달하였으며, 이 중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투자는 281억 달러로 전년대비 5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³⁾

표 3. 2006~10년 중남미 국가들의 대EU FDI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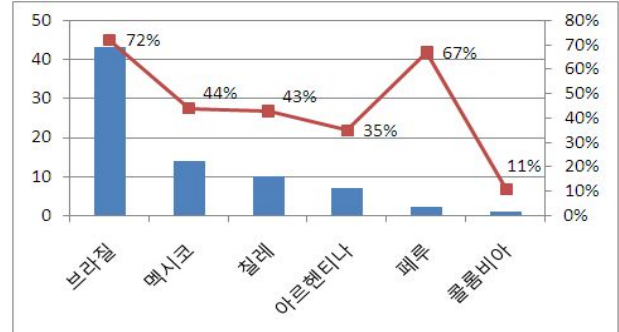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아르헨티나	1,806	1,981	2,342	2,455	...
브라질	...	56,306	56,549	65,618	79,919
칠레	3,775	3,957	3,440	4,075	4,611
콜롬비아	378	2,536	2,862	...	...
멕시코	9,677	10,680	10,918	14,395	...
우루과이	859	2,291	3,933	3,943	...
베네수엘라	21,114	2,256	2,927	3,373	...
기타	8,745	11,783	12,882	18,431	...

자료: UN 중남미 경제위원회, "iDi Markets," Financial Times에서 재인용.

그림 4. 유럽에 진출한 중남미 다국적기업 수 및 그 비중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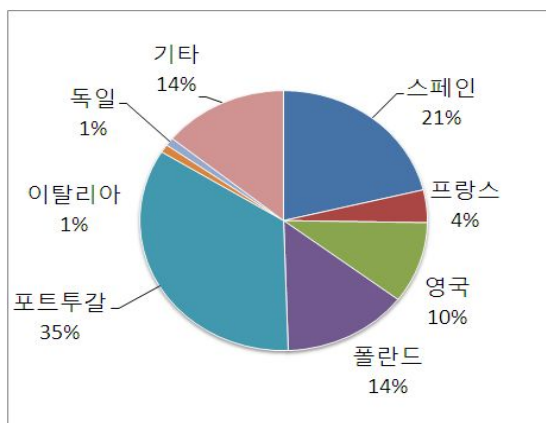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는 EU에 진출한 중남미 각국의 다국적기업 수이며 비중(%)은 이 기업들이 해당국 내 전체 다국적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ESADE Business School(2012), "La década de las multinacionales: Una oportunidad para España."

■ 중남미의 대EU 투자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이며 투자지역은 포르투갈(35%), 스페인(21%)에 편중되어 있음(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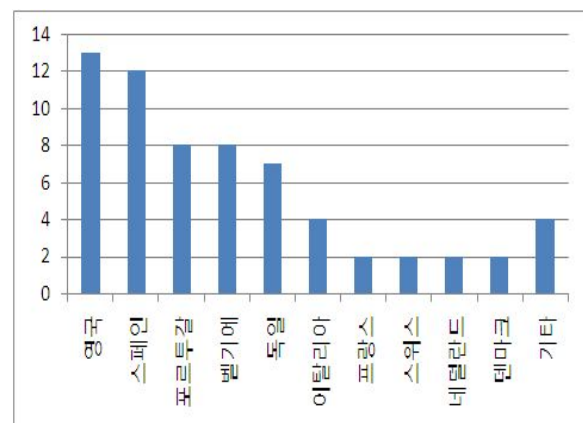
- 규모 면에서 대EU FDI를 주도하는 국가는 브라질이며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표 3 참고).
- 중남미 기업들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을 유럽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전체 FDI 중 16%를, 칠레와 콜롬비아의 경우 10% 미만을 EU 국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의 주요 EU 투자국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이며 칠레는 스페인에, 콜롬비아는 영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그림 5. 2003~11년 중남미의 대EU FDI 국가별 비중



자료: CEPAL, "iDi Markets," Financial Time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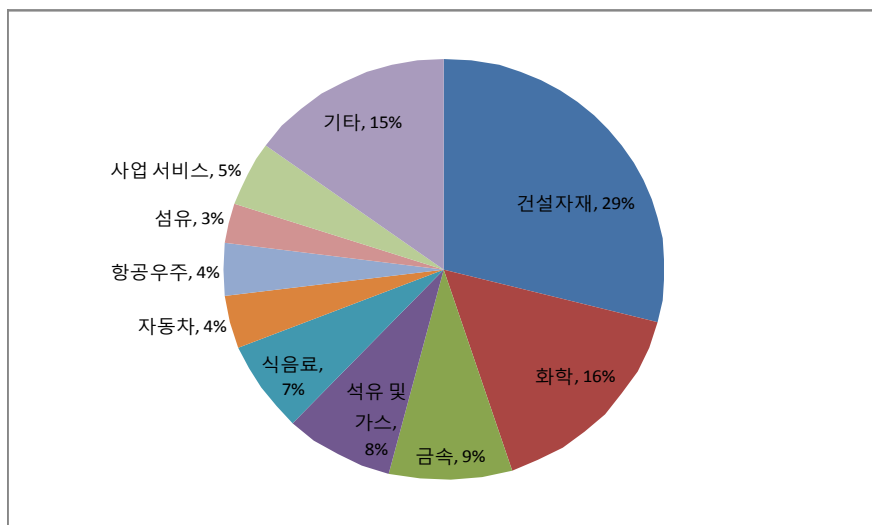
그림 6. EU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주요 중남미 다국적기업 수



자료: ESADE Business School(2012), "La década de las multinacionales: Una oportunidad para España."

- 2003~11년 통계에 따르면 중남미의 대EU 투자부문은 건설자재(28%), 화학(16%), 금속(9%), 석유 및 가스(8%), 식음료(7%)에 주로 한정되어 있음(그림 7 참고).
- 브라질의 Sabó(자동차부품), 멕시코의 Nemak(알루미늄), 브라질의 Embraer(항공)는 대EU 수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럽지역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 밖에도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인 PDVSA, 브라질의 Votorantim 그룹(에너지, 철강, 시멘트, 농산업, 제지), 그리고 Marfrig(육류)가 유럽에 진출해 있음.

그림 7. 2003~11년 중남미의 부문별 대EU FDI 비중



자료: CEPAL, "iDi Markets," Financial Times에서 재인용.

2. EU와 중남미 간 직접투자 증가 배경

가. EU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증가 배경

- 유럽기업들은 중남미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여 소비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중남미 지역 경제성장률은 EU를 앞질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표 6 참고).
- 중남미 지역의 중산층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중남미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한 EU 기업들의 서비스업 진출이 활발해짐.
 - 중남미 국가들의 1인당 GNI는 최근 1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UN의 발표에 따르면 역내 빈곤율도 2002년 43.9%에서 2012년 28.8%로 급감하였음(그림 8 및 그림 9 참고).

-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지역의 1인당 GDP가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자동차나 사치재, 금융서비스, 의약품 등의 소비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⁴⁾

표 4. 2000~15년 EU와 중남미 GDP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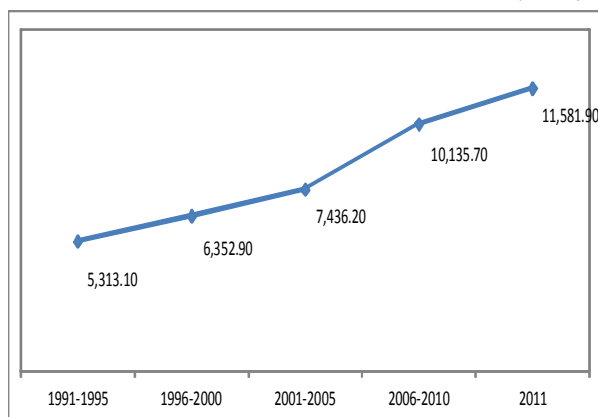
(단위: %)

	2000~02년	2003~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6년
EU	2.6	2.3	-4.3	2.1	1.5	0.3	1.8
독일	1.7	1.5	-5.1	4.2	3.0	0.8	1.3
벨기에	1.9	2.1	-2.8	2.4	1.8	0.2	1.4
스페인	3.8	3.1	-3.7	0.3	0.4	1.4	1.2
프랑스	2.2	1.6	-3.1	1.7	1.7	0.2	1.7
이탈리아	2.0	0.9	-5.5	1.8	0.4	2.3	0.6
네덜란드	2.0	2.3	-3.7	1.6	1.0	0.3	1.5
폴란드	2.3	5.2	1.6	3.9	4.3	2.4	3.6
영국	3.4	2.3	-4.0	1.8	0.9	0.3	2.5
중남미	1.9	4.6	-2.0	6.0	4.3	3.1	4.1
아르헨티나	-5.4	8.5	0.9	9.2	8.9	2.2	4.2
브라질	2.8	4.2	-0.3	7.5	2.7	1.2	4.2
칠레	3.4	4.7	-1.0	6.1	6.0	5.5	4.6
콜롬비아	2.4	5.2	1.7	4.0	5.9	4.5	4.4
에콰도르	4.1	5.3	0.4	3.6	7.8	4.8	3.8
과테말라	3.3	4.0	0.5	2.9	3.9	3.3	3.4
멕시코	2.4	3.1	-6.3	5.6	3.9	3.8	3.6
페루	2.7	7.0	0.9	8.8	6.9	6.2	5.9
우루과이	-5.3	6.4	2.4	8.9	5.7	3.8	4.0
베네수엘라	-0.6	7.5	-3.2	-1.5	4.2	5.3	3.0

자료: IMF; EUROSTAT; World Bank; CEPAL.

그림 8. 1990~2011년 중남미 1인당 GNI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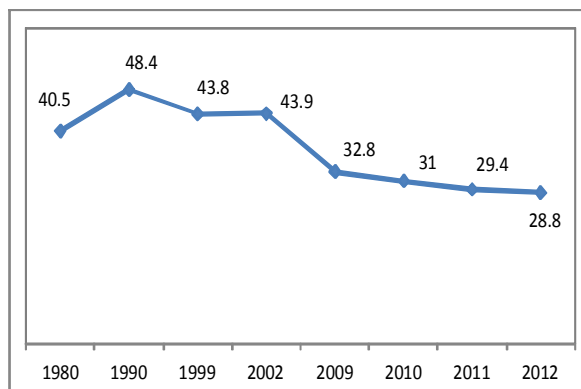
(단위: 달러)



자료: World Bank Data, GNI per capita, PPP(current international \$)(검색일: 2013. 3. 11)

그림 9. 1980~2012년 중남미 빈곤율 변화

(단위: %)



자료: CEPAL(2013), "La Unión Europea y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versiones para el crecimiento, la inclusión social y la sostenibilidad ambiental."

4) Reuters(2013. 1. 26), "EU, MERCOSUR to unblock trade talks, hurdles remain."

■ EU 기업들은 기존에 기반이 부족했던 중남미의 통신 및 송·배전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음.

- 스페인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에서도 중남미에 소재한 자회사들의 높은 수익률로 모회사들은 오히려 높은 영업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됨.
 - 스페인 기업들은 중남미를 국제화를 위한 주요 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자산의 65%가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스페인 통신기업인 Telefónica의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OIBDA)의 60%가, 전력회사인 Endesa 역시 50%가 중남미에서 발생하였음.⁵⁾

나.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의 대EU 투자 증가 배경

■ 2000년대 초반 역내 인근 국가들에만 진출해 있던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은 생산성과 자본력이 증대됨에 따라 활발한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진출전략 다양화 등을 추구하며 EU에 적극적으로 투자함.

- América Economía Intelligence에서 선정한 50대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의 총매출이 2011년 6,230억 달러를 넘는 바, 이는 4년 전인 2007년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임(표 5 참고).⁶⁾
- 역내 진출을 활발하게 해오던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은 스페인을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하여 시장추구형 전략을 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유럽 진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
- EU 진출 1세대 기업들의 경우 시장추구형 전략을, 이후 점차 수출효율성과 전략적 자산 추구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시장추구형 전략을 추진한 산업분야는 시멘트, 철강, 식품,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등이며 Cemex, Grupo JBS, Andrade, Gutiérrez, Cia, Siderúrgica Nacional, Odebrecht, Tenaris, Gerdau가 대표적인 예임.
 - 브라질의 Vale, Petrobras, 칠레의 SQM, 콜롬비아의 Petrominerales와 같은 천연자원집약적 기업들 역시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유럽국가에 투자함.
 - 전략적 자산 추구형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특정 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례로 2008년 Gerdau는 R&D와 현지 시장정보 취득을 위해 스페인의 Spidenor를 인수한 바 있음.

5)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의 마진율은 중남미 지역이 53%, 스페인이 45%, 이외 유럽지역이 26%인 것으로 조사됨.

6) AméricaEconomía(2012. 11. 14), "La hora de las Multilatinas."

표 5. 2007~11년 50대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의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개, 백만 달러)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	기업 수	매출	기업 수	매출	기업 수	매출	기업 수	매출	기업 수	매출
아르헨티나	5	52,124	3	14,902	2	10,349	4	10,752	4	14,582
브라질	18	238,766	17	212,213	18	258,729	17	327,427	16	323,72
칠레	8	26,183	12	38,317	11	34,262	9	39,923	10	47,753
콜롬비아	1	1,650	0	1,000	1	2,261	1	2,224	3	5,755
엘살바도르	1	-	1	-	1	925	1	3,000	1	3,279
과테말라	1	0	1	350	1	300	1	400	1	400
멕시코	12	125,060	13	97,884	13	109,125	14	134,045	12	119,074
미국	1	837	1	1,090	1	980	1	1,127	1	1,450
페루	2	4,300	1	3,600	1	3,500	1	6,400	1	4,700
베네수엘라	1	110,000	1	115,445	1	68,000	1	95,529	1	102,500
총합	50	558,916	50	484,802	50	488,432	50	621,822	50	623,231

주: 소수점 이하 생략.

자료: AméricaEconomía Intelligence.

표 6. 2010년 중남미 다국적기업들(Translatinas)의 EU 진출 주요 사례

기업명	국적	총매출 (백만 달러)	해외고용 비중(%)	부문	기업전략	진출국가	투자형태
Petrobras	브라질	128,000	19.9	석유 및 가스	천연자원 및 전략적 자산 추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신규투자
PDVSA	베네수엘라	95,530	5.6	석유 및 가스	천연자원 추구	영국, 스웨덴	인수
Vale	브라질	49,949	27.1	광업	천연자원 추구	프랑스, 노르웨이	신규투자
Grupo JBS	브라질	28,418	64.0	식품	시장추구	이탈리아	인수
Votorantim	브라질	21,100	...	하이드롤릭, 시멘트	시장추구	벨기에, 헝가리, 포르투갈, 영국, 스위스	인수 및 신규투자
Gerdau	브라질	18,841	48.0	철강	시장추구, 전략적 자산	스페인	인수
Cemex	멕시코	14,435	65.8	시멘트	시장추구, 전략적 자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체코	인수 및 신규투자
Grupo Alfa(Nemak)	멕시코	11,045	51.5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수출 효율성 추구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인수
Andrade Gutiérrez	브라질	10,895	9.7	엔지니어링, 건설	시장추구	포르투갈	인수
Grupo Camargo Correa	브라질	9,698	22.5	엔지니어링, 건설	시장추구	포르투갈	인수
Grupo Bimbo	멕시코	9,487	52.7	식품	시장추구	스페인, 포르투갈	인수
Cia. Siderúrgica Nac.	브라질	8,301	7.3	철강	시장추구	포르투갈	인수
Marfrig Alimentos	브라질	7,788	41.7	식품	시장추구	영국, 아일랜드	인수
Tenaris	아르헨티나	7,711	71.7	철강	시장추구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인수 및 신규투자
Odebrecht	브라질	5,500	48.6	엔지니어링, 건설	시장추구	포르투갈	인수 및 신규투자
Sab	브라질	5,900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 효율성 및 시장추구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신규투자
Embraer	브라질	.	.	항공	수출 효율성 및 시장추구	포르투갈, 프랑스	인수 및 신규투자

주: CEPAL(2013), "La Unión Europea y América Latina y el Caribe: Inversiones para el crecimiento, la inclusión social y la sostenibilidad ambiental" 에서 재인용.

- 최근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고 지역 내 자본수요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에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EU 국가들은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사용의 입지마저 좁아졌으며, 이로 인해 대외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⁷⁾
- 유럽국가들은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스페인 Mariano Rajoy 정부는 경제위기의 해결책 중 하나로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언급한 바 있음.⁸⁾
 - 스페인 Sáenz de Santamaría 부총리는 자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주최된 한 모임에서 중남미 기업들이 스페인에 투자할 경우 본토와의 네트워크 형성, 발전된 통신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인력 등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함.
- 스페인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ESADE Business school은 유럽의 현 경제상황과 신흥국들의 부상을 언급하며 2000년대 들어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⁹⁾

3. 향후 전망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EU의 재정위기로 EU 국가들의 대중남미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유럽, 특히 최대 투자국인 스페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유럽기업들의 투자회수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금융이나 통신서비스 부문과 같이 EU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진출한 부문의 경우 지역 내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바,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될 전망이다.
-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의 EU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기업들의 가치하락과 자본부족, 재정위기 등의 상황으로 중남미 다국적기업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국가들은 중남미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8) El País(2012), “España quiere atraer inversiones latinoamericanas.”

9) ESADE Business School(2012), “La década de las multilatinas: Una oportunidad para España.”

- 양 지역간 투자 부문과 형태를 살펴볼 때 양자간 투자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양 지역은 이를 이용하여 투자협력을 확대해갈 것으로 전망됨.
- 지난 2013년 1월 26일 제1차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 y Caribeños) 및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양 지역간 투자 및 무역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음.
- 현재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나 유럽국가들은 여전히 중남미 지역의 주요 투자국이며, 기술수준 면에서도 우위에 있어 중남미 국가들은 유럽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양 지역은 지역간 중소기업 교류프로그램인 'Al Invest'¹⁰⁾ 등을 통해 유럽의 경제부진을 개선하고 중남미 지역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협력방향을 다양화하고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임. **KIEP**

10) Al-Invest(www.al-invest4.eu)는 European Commission이 중남미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제협력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 중 특히 IV Programme은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되었으며, 중남미 사회의 결합(social cohesion)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국제 진출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유럽 중소기업들과의 지식을 공유하며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Al-Inves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유로 상공회의소(EUROCHAMBRES), 브라질 경제인연합회(CNI), 멕시코 산업은행(NAFIN), 볼리비아 상공회의소(CAINCO)임.